

“양돈산업 말살하는 한·EU FTA 즉각 중단하라”

한·EU FTA 4차 협상… 양돈협, 범국본 “협상 중단해야”

한·EU FTA협상 반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릴레이



▲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을 비롯한 양돈농가들이 지난 10월 15일 한·EU FTA 4차 협상이 열리는 서울 신라호텔 앞에서 한·EU FTA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FTA 4차 협상이 지난 10월 15일 서울에서 시작된 가운데, 양돈협회를 비롯한 시민·농민단체들은 협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양돈협회, 낙농육우협회,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이날 오전 10시 협상장인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는 경제성장과 형평성 모두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EU FTA로 양돈산업 몰락하고, 유럽 소형차가 들어 올 것”

이번 협상에서 돼지고기 개방문제가 최고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양돈협회를 비롯한 양돈농민들의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한·EU는 FTA는 농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EU 쪽 협상 대표는 장벽을 쌓고 농업을 보호하는데, 우리 쪽 김한수 수석대표는 5000년만의



파기회

▲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FTA 4차 협상이 지난 10월 15일 서울에서 시작된 가운데, 양돈협회를 비롯한 시민·농민단체들은 협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김동환 양돈협회장)

절호의 기회라며 농업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농업을 죽이고 나라가 있겠냐며 양돈농가 몰살정책인 한·EU FTA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 기만하는 뽕튀기 FTA 홍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FTA 홍보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근거 없는 뽕튀기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며 “사기극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회장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10일 “EU·멕시코, EU·칠레 FTA 체결 후 대 EU 수출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한·EU FTA의 파괴적 영향을 감추려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멕시코의 국내 통계에 의하면, 협정이 발효된 7년 후 유럽연합과의 멕시코의 무역적자는 79.6% 증가했다”고 밝혔다.



▲ 양돈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과 시민들은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신라호텔 앞에서 한·EU FTA 반대 규탄대회를 갖고 한·EU FTA 협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 돼지 다 죽이는 FTA 결사 반대”

한편 양돈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과 시민들은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신라호텔 앞에서 한·EU FTA 반대 규탄대회를 갖고 한·EU FTA 협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한·EU FTA가 한국농업과 양돈산업을 집어 삼키려 한다.”고 강조하고 “FTA협상은 나라를 믿고 땀 흘리며 일해 온 농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시련이다”면서 “1만여 양돈인들은 국회 부결을 통해 한·미 FTA를 쓰레기통에 폐기시키고 한·EU FTA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양돈농가 몰살정책인 한·EU FTA 중단을 촉구했다.

양돈협, 15~19일 1인 시위 릴레이 개최

또한 양돈협회 관계자들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신라호텔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최희태 부회장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정종극 부회장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김건호 경기도 협의회장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신규태 전남도 협의회장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장장길 충남도 협의회장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전흥우 충북도 협의회장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김성곤 경북도 협의회장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박창식 경남도 협의회장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최용배 이사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정일희 이사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안희영 이사 (예산지부장)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이희환 이사 (김해지부장)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김계현 예산지부 총무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본회 최재혁 주임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김재경 주임



▲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본회 박기진 주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15일에는 양돈협회 최희태 부회장을 선두로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 신규태 전남도협의회장, 최용배 이사, 16일에는 장장길 충남도협의회장, 전홍우 충북도협의회장, 정일희 이사, 김계현 예산지부 총무, 17일 양돈협회 직원들, 18일 정종극 부회장, 김성곤 경북도협의회장, 박창식 경남도협의회장, 안희영 예산지부장, 이희환 김해지부장 등이 차례로 1인 시위 릴레이를 펼치며 양돈산업 사수 결의와 정부의 확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1인 시위에는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퍼포먼스 복장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 시민은 “양돈농가가 FTA로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안쓰럽다.”며 음료를 건네기도 하였다. **양돈**